

對北 강경책이 빌미... 서해 '화약고' 가능성

■北, 남북한의 파기 각국 반응

북한의 남북간 정치·군사 합의 전면 무효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 선언에 대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 긴장 고조에 따른 동북아질서의 위기를 우려했다.

이들 주변국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이번 선언의 빌미가 됐다면서 이는 역으로 북한이 남북 관계의 개선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美 "대남 공세 도움 안돼"=미 국무부는 지난 달 30일 북한이 정치·군사적 남북 합의를 일방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북한의 대남공세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러한 수사적 공세는 분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한반도 비확화 노력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북, 남북관계 최악 대비"=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대남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강경정책으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냉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해 상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 군사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美 "수사적 공세에 불과"

日 "대북정책 전환 압박"

中 "남·북관계 개선 여지 담겨"

러 "북핵 6자회담에 악영향"

통신은 그러면서 조광룡의 발표는 한국정부가 취한 대북정책이 이른바 '부끄러운 실례'를 했다는 상황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끝냈음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곁들였다.

하지만 통신은 조광룡의 성명에 북한이 중시하는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고성 메시지와 맥을 같이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개선 여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러 "군사충돌 가능성 커져"=알래스카주 보론 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국·몽골 과정은 "이번 북한의 결정은 타협이 필요한 양국 관계에 분명히 유감스러운 조치"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이제 갓 출범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日 "대북정책 전환 압박"=일본 고도통신은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 대결 자세를 한층 강화했다"며 "이는 오바마 미 대통령 정권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번 정권까지의 대북 옹화정책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간 이명박 정권과의 대결 자세를 한층 선명히 한 것으로 한국측에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포석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남뉴스

北 김정일, 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추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일 '제333호 선거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 김격식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등 군 고위 인사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를 갖고 김 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로 결정했다.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가 군인 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군 시설인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것으로 미뤄볼 때 이 선거구는 군 관련 선거구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앞서 1998년(제10기)에는 제666호 선거구에서, 2003년(제11기)에는 제649호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추대됐으며, 이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최근 황해도 예성강 청년 1호 수력발전소를 시찰. 전력난 해결을 위해 대형 수력발전소와 중소형 발전소를 병행해 건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선거구 역시 군 관련 선거구다.

김 위원장이 제333호 선거구 선거자대회에서 대의원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그는 앞으로 10여일 후 이 선거구에서 대의원 후보로 공식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남뉴스

뉴욕 지고 워싱턴 뜬다 '경제난 여파' 명암 엿갈려

사상 최악에 빠진 월가의 침체와 더불어 '미국을 이끌어온' 뉴욕시의 이미지도 퇴색하고 있다.

연금을 꺼내고,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고 보너스 잔치를 벌인 월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미국을 이끌어온 도시 이미지를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

컬럼비아대 케네드 짝슨 역사학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뉴욕 맨해튼에서 워싱턴으로 권력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밀레스트'의 제스 바리거스 금융컨설턴트는 월가 경영진들이 약마처럼 비치면서 월가의 영향력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패션계는 다른 어떤 곳의 패션쇼보다 워싱턴에 있는 영부인

미셀 오바마를 주목할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로이터는 일각에서 구제금융을 부분 국유화와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워싱턴이 정부 구제금융을 통해 은행과 금융시장에 대한 더욱 강한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뉴욕의 영향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남뉴스

"대북특사로 빌 클린턴·키신저 파견해야"

"클린턴 美 국무, 첫 해외 방문 한중일 유력"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고위급 밀사(emissary)를 북한에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협력안보프로젝트 국장은 지난달 28일 '원자 과학자 불레틴'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아마도 밀사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빌 클린턴〉

〈헨리 키신저〉

시걸은 또한 북한이 플루토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뉴욕 타임스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NYT는 이날 클린턴 국무장관의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가 상징적 측면과 국무부 관리들에게 향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차원에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국무부 관리들의 말을 토대로, 한·중·일 3국의 아시아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를 방

문할 경우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라이벌인 중국의 실패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국 방문을 통해 향후 잠재적 도전과제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리들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 고위 인사가들이 대거 유럽 방문을 계획 중인 상황에서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를 첫 방문지로 택함으로써 더 큰 외교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남뉴스

케냐 유조차 폭발 100여명 사망

케냐에서 최악의 유조차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94명이 숨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1일 전했다.

AP, AFP,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달 31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부터 북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콜로로 도로에서 유조차가 전복된 후 인근 농장의 주민들이 유출된 기

체를 퍼담으려 몰려든 와중에 불이 붙으면서 일어났다.

조지 사이토리 케냐 내무장관은 "지금까지 94명이 사망하고 178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사망자 중에는 현장에서 군중을 통제하던 경찰관 4명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연남뉴스

= 타민비교거부 =

= 포기마침, 선택순정수 =

*** 79년 공무원 합격의 대세는 ***

"역시" 한빛고시학원

[북구청암 234-0234 www.hanbitgosi.co.kr]

2월 2일

보양음료 숙취해소

관류기능보충에리스토프레스스칼소

아직도, 힘들게 보약을 달아 드십니까?

국산보약은 달여보소 모두의 보양음료입니다.

주요보약 100가지 062-267-7753

상암 보구점 011-3612-8700

승려전문화선배

1,000만원까지 가능

※ 담보대출 안내

※ 사업자 대출 안내

대출금	연이자	연수수료	연보험료	연총비용
1,000만원	100,000원	50,000원	20,000원	170,000원
500만원	50,000원	25,000원	10,000원	85,000원
200만원	20,000원	10,000원	4,000원	34,000원

주요보약 100가지 062-267-7753

상암 보구점 011-3612-8700